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최선경**

이 연구는 기술, 시장 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상호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북한 사회에서 휴대폰 사용이 매개하는 시장 활동의 양상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의 이동 통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휴대폰은 시장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은 시장 정보의 유통, 장거리 원격 거래, 안전한 운송 및 송금 등을 매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북한의 시장 활동에서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결합되면서 발생하는 ‘신뢰’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의 단초는 이윤 창출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 간의 느슨한 연대 형성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새로운 사회적 동학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기술들과 결합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은 시장에서의 결핍된 요소를 보완하면서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

주제어: 북한 사회, 북한 주민, 시장화, 휴대폰, 정보 통신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5782). 유익한 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북한의 이동 통신 가입자는 2008년 12월 이후 주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의 이동 통신은 정보 통신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외국 기업 투자의 결합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노후화되고 보급률마저 낮았던 유선전화망에서 탈피해 산업을 효과적으로 부흥시키는 데 있어 통신의 현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¹⁾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도움과 태국계 록슬리퍼시픽사의 투자를 받아 전국을 연결하는 광섬유 기간망을 완성하였고, 2002년 11월 평양과 나선경제특구에서 휴대전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록슬리퍼시픽과 조선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는 2002년 말 2G GSM 방식으로 평양, 남포, 개성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동 통신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2003년 말 휴대폰 사용자는 약 2만 명에 달했다.²⁾

2004년 4월 용천역 폭파 사건을 기점으로 특정 계층과 외국인 일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 사용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단말기도 회수된 것

-
- 1) 2000년대 초까지 유선 전화망은 북한 인구 기준 10% 미만으로 알려진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정보기술 발전과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세종: 산업연구원, 2017).
 - 2) 북한에서 휴대전화의 비공식 사용은 1990년대 경제난 시기 북·중 접경지역에서 장사, 밀수 및 도강을 위해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 온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Yonho Kim, *Cell phone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2014), <https://pdfs.semanticscholar.org/c082/7be3629ff5f259c3ed75bd08f18300fbbbc0.pdf>.; Juhee Kang, Rich Ling and Arul Chib, “The Flip: Mobile Communic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During Their Journey to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12(2018).

으로 알려진다.³⁾ 이후 2008년 말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의 조선체신성이 합작한 체오(CHEO)사가 시작한 고려링크 서비스는 3G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이동 통신 서비스를 재개하였다.⁴⁾ 북한 휴대폰 사용자는 이동 통신 서비스 재개 이후 북한 내 주요 도시 지역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고려링크, 강성네트 등 이동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4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북한에서는 휴대폰을 두세 대 소지하는 장사꾼들이 상당수이며, 가족이나 친구, 시장에서 휴대폰을 공유하거나 시장 매대에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입자 수와 사용자 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 2017년 UNICEF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의 가구별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 전체 가구 중 69%가 휴대전화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3) 김정일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용천역 폭파 사고는 휴대폰으로 기폭장치를 점화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4) 체오 테크놀로지는 오라스콤이 75%, 조선체신성이 25%의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개통시점 평양지역에서 12만 6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김봉식,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0권 10호(2017).

5) 고려링크 가입자의 경우, 2012년 100만 명, 2013년 200만 명,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었다. ‘강성네트’는 2010년대 초 북한 체신성이 구축한 통신망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서비스를 2013년 10월에 시작하였다. 강성네트는 별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세종: 산업연구원, 2017), 187~188쪽; Yonho Kim, *Cell phones in North Korea*, p.12.

6) 가장 높은 보급률은 평양으로 90.6%에 이르며, 가장 낮은 보급률은 황해남도 52.7%이다.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8). <https://www.unicef.org/dprk/media/156/file/MICS.pdf>.

북한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 단말기는 주요 도시의 체신관리국이 나 소도시의 체신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개인 당 기기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다. 2014년 고려링크 기준으로 기본요금 3,000원에는 무료통화 200분과 문자 20건이 포함된다.⁷⁾ 휴대폰 개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는 불법적인 방식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⁸⁾ 김정은 시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포함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휴대폰 사용 인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⁹⁾

휴대전화 사용은 일상에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통해 유연한 협력을 촉진한다.¹⁰⁾ 다시 말해, 휴대폰 사용은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여 가까운 곳과 먼 곳, 존재와 부재의 이분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 운영,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등 일상 활동을 새롭게 조직하기도 한다.¹¹⁾ 여러 사례들은 휴대폰 사용을 통한

7) 추가 통화를 위한 외화 선불카드 구입이 비쌌던터러 도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김연호, “북한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3호(2014), 62쪽; “북 휴대폰 수요 급증하자 ‘대포폰’도 뜬다,” 『Daily NK』, 2012년 11월 30일. <https://www.dailynk.com/북-휴대폰-수요-급증하자-대포폰도/>(검색일: 2020년 8월 3일). 북한 당국은 2012년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9)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18호(2018).

10) Rich Ling and Scott W. Campbell(eds.), *The Reconstruction of Space and Time: Mobile Communication Practices*(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8), p.92.

11) Leah Jerop Komen, “Mobile Telephony and Copresence in Marakwet, Kenya,”

상호 작용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예컨대, 자원 제약적 상황에 놓인 중소 규모 개인사업자들은 휴대폰 사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한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시장화와 맞물린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 양상과 그 함의에 주목한다. 즉 시장화 배경에서 휴대폰 사용이 매개하는 새로운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거래 네트워크에서 휴대폰을 활용하는 양상을 맥락화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휴대폰 활용이 공식화된 이후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2019년 7월에서 2020년 4월간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한 내용 가운데, 17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였다.¹³⁾ 인터뷰는 먼저 연구 참여

Journal of Development & Communication Studies, Vol.5, No.1(2017).

12) Rich Ling, Elisa Oreglia, and Rajiv George Aricat, Chitra Panchapakesan, and May O. Lwin, "The Use of Mobile Phones among Trishaw Operators in Myanma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9(2015); Bidit Lal Dey, Ben Binsardi, Renee Prendergast, and Mike Saren, "A Qualitative Inquiry into the Appropriation of Mobile Telephony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30, No.4(2013); Jonathan Donner, "Blurring Livelihoods and Lives: the Social Uses of Mobile Phon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Vol.4, No.1(2009).

13) 연구자와의 1 : 1로 진행되는 심층면접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주관적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초점집단면접은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진술을 쉽게 상호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작용의 역동을 통해 보다 풍부한 경험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진행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하는 것은 두 방법론을 상호보완하면서 실태 파악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표 1>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정보

구분	이름	나이	고향	직업	입국 연도	휴대폰 사용 여부
Phase 1(2019.7~10.)						
1	혜정	37	원산	군인	2009	N
2	정우	29	평양	학생/장사	2017	Y
3	승기	56	평성	농장 지도원/ 장사	2015	Y
4	주희	59	온성/평성	교원/장사	2015	Y
5	영수	43	온성/평성	교직원/ 장사	2014	Y
Phase 2(2020.3~4.)						
그룹1 (4)	정우	29	평양	학생/장사	2017	Y
	재훈	30	함흥	군인	2018	Y
	정민	31	함흥	학생	2014	Y
	문철	32	해산	장사	2014	Y
그룹2 (5)	주현	27	무산	노동자	2018	Y
	지현	30	무산	노동자	2014	N
	은정	38	사리원	주부/장사	2019	Y
	정연	63	무산	주부	2019	N
	주옥	54	무산	주부	2013	Y
그룹3 (4)	지수	26	함흥	간호사	2017	Y
	성민	30	해산	장사	2013	Y
	윤정	28	해산	학생/장사	2016	N
	은주	29	해산	학생	2016	N

주: 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쳤으며,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수 있다.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방법론』(과주: 한울, 2003), 308~310쪽;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서울: 아르케, 2004), 81쪽.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초점집단면접 진행시 1~2명의 참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구자는 발언이 저조한 다른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여 대화의 흐름을 조율하기도 했다.

자가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 경험과 한국 생활 중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한 경험을 구술하였고, 이어 연구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5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2020년 3~4월간, 4~5명의 구성원들로 3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¹⁴⁾ 연구참여자 중 13명은 북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10명은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소유한 휴대폰 사용자였다. 또한 2명은 시장에서 피쳐폰을 빌려 장거리 통화를 한 경험이 있으며 1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폰을 입수하여 중국과의 밀수에 사용하였다.

2. 휴대폰 사용, 시장 활동, 그리고 신뢰

휴대폰은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개인적 도구로서 휴대폰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거래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새로운 사회적 다이내믹을 매개한다. 휴대폰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리적 거리를 좁히고 사람 간의 연결을 제공한다. 휴대폰이라는 기기의 ‘새로움’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담지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기술적 매개(technical mediation)’를 통해 결합하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들로 형성되는 현실을 고찰하는 하는 것이 유용하다.¹⁵⁾ 이러한 기술에도 행위성

14) 정우는 심층면접과 FGI1 모두에 참여하였다.

을 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적 관점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이질적 속성이 얹힌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기술적 표준과 사회적 규범이 교차하는 현장인 휴대폰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기술사회적 실천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⁶⁾

지구 남반구(Global South) 개발도상국 휴대폰 사용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¹⁷⁾ 개발도상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휴대폰 보급 이후 시장 활동에서 정보 교환으로 시간과 교통비가 절약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인도의 서남부 해변 지역에서는 휴대폰 보급 이후 정어리 가격이 안정되어 지역 어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¹⁸⁾ 나이지리아 사례에서도 직물 산업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유통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가나에서는 장거리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농작물 공

15) 브루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서울: 이음, 2010).

16) Mizuko Ito and Daisuke Okabe, "Technosocial Situations: Emergent Structures of Mobile Email Use," In Ito, Okabe and Matsuda(eds.), *Personal, Portable, Pedestrian: Mobile Phones in Japanese Life*(Cambridge: MIT Press, 2005).

17) 인구당 보급률이 북한과 비슷한 수준인 개발도상국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휴대폰 사용 양상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18) Robert Jensen, "The Digital Provide: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Performance and Welfare in the South Indian Fishers Sect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2, No.3(2007).

19) Abi Jagun, Richard Heeks, and Jason Whalley, "The Impact of Mobile Telephony on Developing Country Micro-Enterprise: A Nigerian Case Study,"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4, No.4(2008).

급 과정에서 정보의 교환, 가격 비교의 편리, 보다 안전한 이체 등을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의 신뢰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미얀마 어촌 사례에서는 어민들이 생계를 위한 경제적 사용과 함께 물고기 떼 출몰,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을 실시간각 전달함으로써 휴대폰의 사용이 커뮤니티 내 사회적 기능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²¹⁾ 이러한 사례들은 시장 활동의 활성화 및 거래 네트워크 상호작용 강화와 같은 휴대폰 사용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경제적 사용과 사회적 사용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²²⁾

이렇듯 휴대전화 활용이 촉진하는 ‘신뢰’와 ‘협력’은 시장 활동에서 의미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는 상대방의 거짓말, 계약 파기 등의 리스크, 즉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경제학자 노스(North)는 정보와 법적 장치가 결여된 시장에서 거래자들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따르게 된다고 주장했다.²³⁾ 다시 말해,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뢰를 쌓게 되는데, 신뢰는

20) Ragnhild Overå, “Networks, Distance, and Trust: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Changing Trading Practices in Ghana,” *World Development*, Vol.34, No.7(2006).

21) Ragnhild Overå, “Networks, Distance, and Trust: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Changing Trading Practices in Ghana”.

22) 도너(Donner)는 거래 관계에서도 전화통화는 라포, 신뢰, 사회적 자본 등을 형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통화(economic call)와 사회적 통화(social call)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Jonathan Donner, “Blurring Livelihoods and Lives: the Social Uses of Mobile Phon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23) Douglass C. North,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hird World Development,” in John Harriss, Janet Hunter and Colin Lewis(ed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hird World Development*(London: Routledge, 1995).

사회적 규범과 그 규범을 따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때 네트워크는 느슨한 우정부터 잘 조직된 제도까지를 포함한다.²⁴⁾ 시장 참여자 네트워크는 협력이라는 공동의 규칙 또는 사회적 자본 내에서 작동하며, 이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콜만(Coleman)은 지속적인 상호 인정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경제 주체의 경제 관계 속에 내재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이자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²⁵⁾ 즉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가 가지는 경쟁력이기도 하다.²⁶⁾ 이처럼 연결성과 이동성을 촉진하는 휴대폰 사용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규범 구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²⁷⁾

24) Fergus Lyon, “Trust, Networks and Norms: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in Agricultural Economies in Ghana,” *World Development*, Vol.28, No.4(2000).

25) Jame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1988).

26) 후쿠야마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 달성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Francis Fukuyama, “Social Capital,” in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New York: Basic Books, 2001), pp.98~111.

27)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북한 당국의 감시 체계도 발전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수준의 신뢰가 형성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인터뷰 결과,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묵인과 통제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다룬 연구들은 일상을 북한 체제에 균열을 내는 자원으로 위치시키고 일상의 변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²⁸⁾ 몇몇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이 체제와 시장 참여 주민 간의 경합과 타협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⁹⁾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시장의 일상 세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술의 개입에 주목한다.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연구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의 스마트폰 개발 기술력과 북한의 ICT 산업 현황에 주목해 온 면이 있다.³⁰⁾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에 초점을 맞춘 몇몇 연구들은 남한의 콘텐츠를 비롯한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³¹⁾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정보 통제력에 대해 논의하였다.³²⁾ 최근

28) 홍민, “북한 시장 일상의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조정아, “북한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정영철,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29)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2005); 정영철, “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통제: 계곡의 시장,” 『현대북한연구』, 제12권 2호(2009); 최봉대,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들과 방법적 보완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30) 정은미,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KINU Insight』, 19권 2호(2019);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18호(2018). 이 밖에도 『월간 북한』, 『통일한국』 등의 간행물에서도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와 IT 기술개발 관련 소논문들이 다수 출간되었다.

31) Ho-kyu Lee, “Interpretations of the Social Meaning of Mobile Phone to North Korea,”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2호(2017); 고경민, “민주화를 위한 ICT(ICT4D)와 북한: 이론적 함의와 비교적 시각에서의 전망,” 『평화학연구』, 제16권 4호(2018).

몇몇 연구들은 사용자 수, 단말기, 요금제 등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의 전반적인 현황³³⁾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도 다루었다.³⁴⁾ 이 연구들은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들로 의미가 있지만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적 관점에서의 북한 주민의 경험과 그 함의를 다룬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 기술, 시장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상호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휴대폰 사용이 매개하는 시장 활동 양상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³⁵⁾ 본 연구에서 ‘시장 활동’은 공식/비공식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현재 휴대폰 사용을 통한 북한 내 시장 활동의 실천적 맥락에 주목한다.³⁶⁾

32) Marcus Noland, “Tele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Has Orascom Made the Connection?,” *North Korean Review*, Vol.5, No.1(2009), pp.62~74; Victor Cha and Nicholas D. Anderson, “A North Korean Spring?,”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5, No.1(2012), pp.7~24; Berhad Seliger and Stefan Schmidt, “The Hermit Kingdom Goes Onlin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 Policy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10, No.1 (2014), pp.71~88.

33) 김연호, “북한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3호(2014).

34) Yonho Kim, *Cell phones in North Korea*.

35) 북한의 시장화가 시작된 1990년대에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밀수꾼들이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후 중국 휴대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북한 국내 이동 통신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시장 활동에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점은 2010년대 초부터로 추정할 수 있다.

36) 북한은 공식적인 제도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악력이 약화되고 시장 역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사실상 승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비공식경제’라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세종: 산업연구원, 2014), 12~14쪽.

3. 시장 활동에서의 휴대폰 사용 양상

북한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의 개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앉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했다. 거래 당사자들은 시장 정보를 확인하고, 가격, 수량, 운송, 배달 방법을 휴대전화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1) 시장 정보 교환, 2) ‘앉은 자리’ 거래, 3) 운송 비용 및 리스크 감소 및 4) 안전한 송금 등으로 구분하여 휴대폰이 매개하는 시장 활동 양상을 살펴본다.

1) 시장 정보 교환

우선 장마당의 도소매 상인들은 연고지 또는 타 지역 시장의 수요와 가격 등 시장 관련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교환하였다. 전국 각지의 시장 정보를 수집해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지역의 시세, 재고, 환율 등을 이동 없이(또는 이동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

부업으로 장사를 했던 평성 출신 50대 남성은 신의주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중국 단둥으로부터 어떤 물자가 언제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다.³⁷⁾ 농장 지도원이었던 그는 부업으로 국경

37) 신의주 대방을 통해 구매한 물품들로는 사탕가루, 밀가루, 콩, 양말, 맛내기, 담배 등이 있었다. 승기와의 인터뷰. 신의주는 중국 단둥으로부터 물자를 들어오는 통로이며, 평성은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물류 중심지이다.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북한 최대 도매시장인 평성을 연계하는 교량 역할을 하여 중국 물품이 단둥, 신의주, 평성을 거쳐 평양으로 유통된다. 홍민 외, 『북한 실태 연구: 도시 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서울: 통일연구원, 2020).

지역에서 중국 식료품을 구매하여 평성과 평양에 내다 파는 중간 도매상 역할을 했는데,³⁸⁾ 타 지역으로 지도 사업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물건을 구매해서 돌아오기도 했다. 구매 전 반드시 중국 물건을 들어오는 통로인 신의주의 시장 가격과 중국 물건을 내다 파는 주요 시장인 평성과 평양의 시세를 휴대폰으로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혜산으로 출장을 갔을 때 평성에 전화를 해서 “양말, 콩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물어보면, 바로 “양말은 얼마니까 가져오고, 콩은 얼마니 가져오지 마라”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정보를 비교하였다. 이처럼 장거리 거래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각지의 시세를 신속하게 알아보고 어떤 물품을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결정했다.

시장 활동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앓은 자리”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증언했다. 시장화 이후, 다른 장사꾼들 보다 수요에 맞춰 “좋은 가격에 물건을 빨리 보내”는 것이 중요해진 것인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수급 흐름과 가격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장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까닭이었다. 한편, 각 지역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서 휴대폰 보급 이전과 비교하여 차익이 줄었다는 견해도 있었다.³⁹⁾ 이는 휴대폰을 통해 시장

38) 북한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차 공급자는 무역회사, 보따리장수 등 소규모 수입업자 및 밀수업자, 화교상인, 개인 생산자, 국영기업의 합법적인 공급, 무역회사의 비공식적인 공급, 사적인 제조업자 등이다. 2차 공급자는 중간상 등 유통 부문의 도매상인으로, 왕도매업자(1차도매업자)와 도매업자 등이다. 3차 최종 판매자는 종합시장 대매, 직매점, 대매 등 상점, 대규모 유통시설, 국영 유통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세종: 산업연구원, 2014), 18~19쪽.

39) FGI2.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상품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의 가격 차이에 의존하는 장사 방법은 더 이상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⁴¹⁾

이 밖에도 휴대폰으로 교환하는 시장 정보로는 환율이 있었다. FGI에 참여하였던 50대 여성은 북한에서 휴대폰 보급 이후 “돈장사꾼이 평양의 달러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장 먼저 손에 쥐”었다고 했다. 환전상들은 평양의 환율이 오르면 “지방에서 달러를 사서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풀어서 내화로 바꾸고”, 평양 환율이 내려가면 “지방에서 달러를 풀어서 내화를 쥐고 평양으로 가서 달러를 사”는 방법으로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평양의 시장 환율과 각 지방 암거래 시장 간의 환율 차이에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진행되면서 시장 거래에서 달러가 통용되는 현상이 보편적인데, 거래 시 시장 근처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들에게 연락해서 국돈(내화)을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⁴²⁾

40)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세종: 산업연구원, 2017), 190~191쪽.

41) 가격과 수요에 대한 정보는 상품의 이동을 촉진시키며,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어 가격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세종: 산업연구원, 2014), 172쪽.

42) 영수와의 인터뷰.

2) ‘앞은 자리’ 거래

휴대폰 보급 이후, 거래 당사자들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가격 협상을 거쳐 구매와 판매까지 전화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평양에서 소비재를 유통했던 20대 남성은 타 지역 물품을 구매하기 전 먼저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평양 가격을 다 알아보”고 “운송비와 손에 떨어지는 이익”을 계산하여 휴대폰으로 흥정을 해서 최종 구매를 결정했다.⁴³⁾ 그는 회령, 신의주, 혜산 등을 통해 중국에서 넘어온 옷, 신발, 밥술 등을 평양으로 들여왔고 평양에서 생산한 담배, 설탕, 과자를 각 지역으로 내다 팔았다. 휴대폰 사용 이후, 평양-지방, 국경-내륙 간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졌고, 각 지역 거래자들과의 거래 관계망을 넓힐 수 있었다고 보았다.

평양 약기공장에서 생산된 손푼금을 평성에서 전국 각지로 유통했던 40대 남성은 휴대폰으로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서 중간상의 개입이 줄어들어 유통 경로가 단축되고 구매와 판매가 편리하게 된 점을 휴대폰 사용 후 변화로 꼽았다. 유선 전화 시절에는 지방 고객들이 “차비를 써서 장마당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비싼 약기들을 제외하고는 “벌이버스들에게 이관”하는 시스템이 되었다.⁴⁴⁾ 이뿐만 아니라, 평양 약기공장 사람들이 평성을 거치지 않고 지방 사람들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와 같이 휴대

43) 정우와의 인터뷰.

44) 처음에는 지방 거래처 사람들이 약기를 사러 직접 평성에 왔지만 점점 기차와 화물차 편으로 상품을 넘겨받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폰 연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약기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여전히 직접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폰 사용으로 인해 시간과 교통 비용이 절감되고 있으며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가 형성되면서 장거리 직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휴대폰 사용으로 구매와 판매의 동시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신의주에 있는 무역 회사에다 전화해서 “너네 설탕 들어왔다매?” 해서 “얼마에 내니?” 하면 “얼마에 낸다” 하면 “30톤 왔으니 빨리 들어오라”. 그렇게 밤중에 써비차를 조직해서 보내죠. 설탕 오라고 해놓고 사방에 전화하는 거예요. 신의주에서 “톤당 150달러에 받는다” 하면, 문덕, 숙천, 안주 이런 데 있는 아이들한테 “톤당 설탕 170달러에 가질래?” 그러면 “두 톤, 세 톤 달라” 해서 물자가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되어 있어요. 빠른 애들은 차 가지고 이미 와 있어. 와서 기다리고 딱 내리면 설탕이 마대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설탕 마대가 보통 40~50킬로 마대니까 봐서 치안 애들은 한 짝 더 실어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장사할 수 있고. 투자 한 푼도 안 하고 거의 전화기로만 얼마 보내라. 보통 설탕은 한탕하면, 차 두 대, 석 대로 해서 [2010년 기준으로] 설탕 30톤에 500불에서 1,000불 차익을 남겼어요. 이게 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거죠(송기와의 인터뷰).

시장 참여자들은 “오고 가는 맞돈” 없이도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 즉 기존의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 매개한 구매/판매의 동시화는 물류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혜산에서 약초를 캐어 중국 장백으로 내다 팔았던 30대 여성은 중국 대방으로부터 구매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여 중국 쪽 거래처와 연락

을 했다.⁴⁵⁾ 국경지역 탐지기를 피해 정해진 시간에만 휴대폰을 꺼놓았고, 통화보다는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음성 메시징 기능을 주로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중국 대방에게 산나물, 개구리 기름을 판매하고 쌀, 밀가루를 구매할 때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중국 인터넷을 잡아 시장 가격을 검색”하여 중국 현지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3) 운송 비용 및 리스크 감소

별이차를 비롯하여 시외버스, 기차를 통한 이동은 상업 행위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데,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물류 유통 부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직접 물건을 들고 장거리 거래에 나서는 ‘달리기’⁴⁶⁾는 자취를 감추고 버스 기사와 열차원들의 전화번호만 있으면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물품 운송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라진-평양 구간 열차원들은 구간을 왕복할 때마다 출발지에서 승무원 좌석에 ‘장삿짐’을 신고 도착지에 상품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상품 수송을 한다.⁴⁷⁾ 열차원들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마다 상품을 인계하는데, 보통 도착 전에 전화나 문자를 해서 열차 도착 시간을 수신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 승객 없이 이루어지는 상품 수송은 시외버스의 경우 차장이 배송을 책임지는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⁴⁸⁾

45) FGI3 성민과의 인터뷰.

46) 이른바 ‘달리기 상인’은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는 등 북한 시장경제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수령을 대체한 화폐,” 『담론201』, 제10권 2호(2007).

47) 영수와의 인터뷰.

48)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136쪽. 승기, 주희와의 인터뷰.

이러한 국영 교통수단 외에도 개인들이 조직하는 써비차(또는 별이차)의 발달은 휴대폰 사용과 맞물려 유통 네트워크 형성과 유통 과정에서 정보 공유를 촉진하였다. 별이 버스 기사들은 휴대폰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운송 가격을 따져보며 어느 차를 이용할지를 정하기도 한다.⁴⁹⁾ 또한 휴대폰 사용은 운송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기도 했다.

별이버스 번호 알려주고 버스가 몇 시까지 도착한다 하면 버스 차주들이 전화가 와요. “버스 도착했으니 뭘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버스 차주들이] 전화번호랑 버스번호 우리에게 문자를 주거든요. 몇 시경에 도착한다는데 나와 미리 기다리지 않도록 10리, 5리 전부터 우리에게 문자 다 전송해 줘요. “이제 30분 후면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물건 찾아 가시오” (주희와의 인터뷰).

휴대폰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타 지역에서 물건을 싣고 떠난 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는지, 먹고 튀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속을 태웠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어 차에 실린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중간 경유지 도착”과 “초소 통과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 등 시시각각 운송 상황을 전달받고 조율할 수 있었다.⁵⁰⁾ 이와 같이 휴대폰 사용은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이동 비용과 손실 리스크를 줄인 것으로 확인된다.⁵¹⁾

FGI1.

49)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190쪽.

50) 승기와의 인터뷰.

51) Ragnhild Overaå, “Networks, Distance, and Trust: Telecommunications

4) 안전한 송금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민간 송금 체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된다. 휴대폰을 통한 송금 방법으로는 전화돈을 보내는 방법과 은행 역할을 하는 ‘이관집’, 즉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방법이 활성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전화돈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음성통화 외 추가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상대의 휴대폰 번호로 ‘통신돈’을 넣으면 각 지역 “봉사소에서 국돈(내화)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북한에서 군복무는 출신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부모가 ‘전화돈’으로 “용돈을 넣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상화된 것으로 확인된다.⁵²⁾ 이때 봉사소 또는 체신소의 중개자는 20~40%의 수수료를 챙긴다. FGI 참여자들은 군 복무자에게 ‘전화돈’을 보내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⁵³⁾

정연: 전화돈 사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고 해요. 군대 나간 애가 있으면 전화돈으로 자식들한테 다 쏘 준다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휴대폰 없으면 옆에 아는 아줌마한테 주면 보내준다고 말이죠. 돈이 국돈으로 전환이 된대요. 돈을 보낼 때 잘 주는 데는 수수료를 30% 먹고 70% 보내주고, 못 주는 데는 60% 보내고 그래요. 브로커 같은 거죠. 매대는 그렇게 장사를 하죠.

은정: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돈을 보내면, 아들이 받으러 왔잖아요. 그

Development and changing Trading Practices in Ghana”.

52) 영수와의 인터뷰.

53) FGI2.

럼 엄마하고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요. 그럼 확인하고 돈을
딱 줘요. 상대방 전화번호부터 딱 받고 하지 함부로 안 해줘요.

북한에서 통신 요금을 전송하여 현금화하는 방법 외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편화된 현상이다. 여기서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이관집’으로 불리는 송금 브로커가 곧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지역 도매업자가 B 지역의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보내면 B 지역 도매상이 물건을 팔고 A, B 지역의 이관집이 각각 결제 은행 역할을 하여 수수료를 댈 액수를 전달한다.⁵⁴⁾ 송금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송금자와 수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인데, A, B 지역 이관집들끼리 송금 정보를 전화로 교환하고 A, B 지역 도매업자들끼리 전화로 송금과 수취를 확인한다. 여기서 A, B 지역 이관집은 별도의 거래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관집들은 다른 장사를 겸하기 때문에 맞돈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돈 대신 상품” 거래로 대체하기도 한다.⁵⁵⁾ 여기서 송금의 전 과정은 ‘거래선’과 휴대폰 통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휴대폰이 활용된다. 이때 한국-중국-북한 3각 송금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북한, 그리고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체인이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도 증가한다.⁵⁶⁾

54) 이때 외화와 내화에 붙는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통상 외화 보다 내화 송금 수수료가 높다. 경우에 따라 외화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도 한다.

55) 주희, 영수와의 인터뷰; FGI2.

56) 중간 수수료는 중국 측 중개자가 10~20%, 북한 측 중개자가 10~20% 정도 유지하

이 때문에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브로커를 직접 만나서 받는 방법을 선호했으며, 내륙 지역 주민들도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여 국제 통화를 하기도 했다. 송금 과정은 통상 북한에 있는 가족이 먼저 남한에 입국한 가족에게 브로커를 통해 국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⁵⁷⁾ 다시 말해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의 가족은 국경 지역 브로커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때 국경 지역의 브로커는 북한 가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북한 휴대폰과 남한 가족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국 휴대폰을 맞대어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국 휴대폰이 산에서 잘 터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북한 가족의 녹음된 목소리를 국제 전화로 들려주는 사례도 확인된다.⁵⁸⁾ 이와 같이 해외 송금은 지역과 지역 간 그리고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휴대폰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고 하고 있다.

4. 휴대폰 사용과 ‘실패’ 네트워크의 가능성

북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굶어도 손전화는 쥐어야 한다”, “손전화를 살 밀천이 없는 사람들은 장사할 밀천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⁵⁹⁾ 혜산에서 어구 장사를 했던 20대 남성은 “전화(휴대폰)가 있는

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이,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연구』, 제29권 4호(2017).

57)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국제전화가 먼저 걸려온 후, 브로커가 알려준 다른 중국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기도 했다. 혜정, 정우, 승기, 주희, 영수와의 인터뷰.

58) 정우와의 인터뷰.

사람들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그물이 필요한지” 정보를 얻어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⁶⁰⁾ 간호사였던 20대 여성 또한 “바쁜 환자들은 집에서 주사를 맞는데 폰이 없으면 그런 환자를 놓치게” 되어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쓰기도 했다.⁶¹⁾ 이와 같이 휴대폰은 부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거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지 않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동 통신은 상품 사슬(commodity chain)에 참여하는 개인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더 이상 “발품을 파는 수고” 없이 시의적절한 시점에 거래를 진행하여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하였다. 휴대폰으로 얻은 시장 정보로 가격과 수량을 신속하게 알아보고 구매와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상품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었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은 평양과 지방 간, 국경과 내륙 간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여 유통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켰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개자 없이 보다 빠르게 대방과 소통하게 되면서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때로는 더 많은 새로운 고객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휴대폰을 손에 쥔 개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비공식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 활동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거래 전 정보 수집, 협상 및 이행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췄고, 이러한 거래가 반복되면서 신용이 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59) 정우와의 인터뷰; FGI1, 3.

60) FGI1 문철과의 인터뷰.

61) FGI3 지수와의 인터뷰.

62)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서울: 선학사, 1999), 148~154쪽; 이석기·양문수·

휴대폰의 경제적/사회적 사용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⁶³⁾ 거래 관계에서 휴대폰 번호 자체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신원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정보를 교환하고 구매, 판매, 유통을 하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통화가 반복되면서 상호 연결성도 강화되었다.⁶⁴⁾ 거래 과정에서의 신용도는 장기적인 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거래자들은 상대방의 평판과 신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보기도 한다.⁶⁵⁾ 상품 운송 과정에서 벌이차 기사들과의 연락을 통해 상품의 이동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대방을 더욱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외상 거래를 촉진시켰다는 의견도 있었다.⁶⁶⁾ 북한에서 상인 간 금융 거래는 일반적으로 대상인이 무역 도매로 가져와 중간 상인에게 외상으로 주면 중간 상인들이 소매상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대상인에게 갚는 형태로 이루어진다.⁶⁷⁾ 이러한 중소 규모 외상은 최근 상당히 발달하는 추세인데, 휴대폰을 활용한 소통과 네트워크가 신용 기반 거래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172쪽.

63) Jonathan Donner, “Blurring Livelihoods and Lives: The Social Uses of Mobile Phon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64) 목적 지향적 네트워크에서 신뢰는 소통과 상호작용의 반복을 통해 쌓이게 된다. Ragnhild Overå, “Networks, Distance, and Trust: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Changing Trading Practices in Ghana”.

65) 특히 송금은 장기간 신용 관계가 쌓인 이관집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66) “한 폰도 안 가지고 가서 해산에서 주문하고 평성 와서 물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기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신용 거래가 더 이제 자주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신용에 기초해서 신의주에서 설탕을 먼저 보내고, 조금 있다가 평양 들어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서 돈 받아가지고 가고. 이런 식도 하죠(송기와의 인터뷰).”

67)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294쪽.

이와 같이 시장의 발달은 이동 통신의 확산과 상호 결합되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소통은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간의 신뢰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때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전략이 모색되기도 했는데, 거래처와의 통화에서 암호를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⁶⁸⁾ 예를 들어, 거래자끼리 “법에 위반되는 장사”를 진행할 때 “1번, 2번”으로 미리 암호를 정해 놓는 등 당국이 규제하는 “비밀스러운 물품”을 지칭하였다.⁶⁹⁾ 시장 참여자들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단속을 조심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 중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대폰 사용은 “모르던 사람 번호를 주고받고, 인사를 하고, 물건도 주고받으며” 새로운 거래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며, 동시에 이미 검증할 필요가 없는 기존 거래선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새로운 거래 대방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작은 돈을 받고 보내는” 등의 검증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래선을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했다.⁷⁰⁾ 휴대폰 사용은 장거리 커뮤니케이션을 편리하게 했지만,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반복하며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거래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경향을 보였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이관 시스템’은 “맞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목돈을 휴대하여 움직일 때의 리스크를 완화했다.

(68) 연구 참여자들은 당국이 통화 내용을 항상 도청하고 있으며 보안원이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할 때 전화부터 검색”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69) 정우와의 인터뷰; FGI3.

(70) 정우, 영수와의 인터뷰.

국내 또는 해외 송금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함경도에 거주했던 60대 여성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송금 확인을 할 때, 황해도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들었다. 북한과 남한에 떨어져 있는 원거리 가족 간의 송금 과정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송금과 수취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과 친지의 근황을 주고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⁷¹⁾ 북한과 남한에 떨어진 가족의 송금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초국적 가족 유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²⁾

북한의 이동 통신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보 유통의 촉진은 시장 경제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 이동 통신의 확산과 휴대폰의 보급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크게 성장한 시장의 발달과 맞물려 개인의 이윤 획득과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휴대폰 사용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거래의 기회를 확대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신용을 담보한 거래를 일정 부분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통과 거래의 반복을 활성화함으로써 거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원거리 협력 관계 형성을 매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휴대폰으로는 간단한 통화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대면

71) 정우, 주희, 영수와의 인터뷰. 북한 가족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브로커의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좋은 음질로 장시간 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국경 지역의 브로커가 북한 휴대폰과 중국 휴대폰을 붙여서 하는 통화하는 방식은 편리하지만, 음질이 좋지 않고 신원확인 및 송금액수를 확인하는 정도로 통화를 끝내야 했다.

72) 버토벡(Vertovec)은 휴대전화가 이주자 트랜스내셔널리즘에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Steven Vertovec, "Cheap calls: The Social Glue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Vol.4, No.2(2004).

소통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모든 통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인식은 휴대폰이 매개하는 시장 활동이 여전히 ‘감시’라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개인과 그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와 송금은 시장에서 대안적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새로운 사회 규범 작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5. 나가며

북한의 이동 통신과 휴대전화 사용의 확산은 북한의 시장 발달과 급속히 결합하였고 시장 행위자의 휴대폰 사용은 새로운 사회적 규범 안에서 시장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을 매개하고 있다. 이동 통신이라는 신기술의 도입은 정보 비대칭성의 감소, 원격 거래, 물류 유통의 활성화, 원활한 송금 등 개인의 시장 활동에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북한 당국의 이동 통신 확대는 시장 참여자의 소득 창출 기회와 시장 효율성 증대라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시장 활동도 여전히 ‘공적’ 국가 감시 시스템에 포섭되어 있는데, 위로부터의 통제와 이를 모면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책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휴대폰 사용은 북한 사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 휴대폰 사용이 매개하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였으며, 이는 거래 비용 감소와 신용 거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원은 휴대폰의 경제적 사용과 사회적 사용 그리고 북한 국내와 초국적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동하였다.

경제 활동에 동원되는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의 결합으로서 휴대폰전화의 사용은 북한 당국의 묵인과 통제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문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북한의 개별 경제 주체들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⁷³⁾ 북한의 시장화는 일종의 새로운 유동체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기술들과 결합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시장화와 맞물린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 양상은 시장에서 결핍된 요소를 자생적으로 보완하여 구축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단초는 감시와 통제가 존재하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시장 행위자들 간의 느슨한 연대 형성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4월 5일 / 채택: 4월 12일

73)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2012), 118쪽.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라투르, 브루노(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역음(서울: 이음, 2010).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세종: 산업연구원, 2014).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세종: 산업연구원, 2017).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서울: 선학사, 1999).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서울: 아르케, 2004).

홍민 외,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서울: 통일연구원, 2020).

2) 논문

고경민, “민주화를 위한 ICT(ICT4D)와 북한: 이론적 함의와 비교적 시각에서의 전망,” 『평화학연구』, 제16권 4호(2018).

김봉식,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0권 10호(2017).

김연호, “북한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3호(2014).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18호(2018).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2012).

정영철, “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통제: 계류의 시장,” 『현대북한연구』, 제12권 2호(2009).

_____,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정은미,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KINU Insight』, 19권 2호(2019).

정은이,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연구』, 제29권 4호(2017).

조정아, “북한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수령을 대체한 화폐,” 『담론201』, 제10권 2호(2007).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3).

_____,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들과 방법적 보완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2005).

홍민, “북한 시장 일상의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Ho-kyu Lee, “Interpretations of the Social Meaning of Mobile Phone to North Korea,”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2호(2017).

3) 신문

“北 휴대폰 수요 급증하자 ‘대포폰’도 뜬다,” 『Daily NK』, 2012년 11월 30일.
<https://www.dailynk.com/북-휴대폰-수요-급증하자-대포폰도/>(검색일: 2020년 8월 3일).

2. 국외 자료

1) 단행본

Elder, Laurent, Rohan Samarajiva, Alison Gillwald and Hernán Galperin, *Information Lives of the Poor*(Ottawa, Canada: IDRC, 2013).

Rich, Ling and Scott W. Campbell(eds.), *The Reconstruction of Space and Time: Mobile Communication Practices*(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8).

2) 논문

- Aricat, Rajiv George and Rich Ling, "Collective Appropriation and Cooperative Uses of Mobile Telephony among Burmese Fishers," *Information Development*, Vol.34, No.5(2018).
- Cha, Victor and Nicholas D. Anderson, "A North Korean Spring?,"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5, No.1(2012).
-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1988).
- Dey, Bidit Lal, Ben Binsardi, Renee Prendergast and Mike Saren, "A Qualitative Inquiry into the Appropriation of Mobile Telephony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30, No.4(2013).
- Donner, Jonathan, "Blurring Livelihoods and Lives: The Social Uses of Mobile Phon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Vol.4, No.1(2009).
- Fukuyama, Francis, "Social Capital," in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New York: Basic Books, 2001).
- Ito, Mizuko and Daisuke Okabe, "Technosocial Situations: Emergent Structures of Mobile Email Use," In Ito, Okabe and Matsuda(eds.). *Personal, Portable, Pedestrian: Mobile Phones in Japanese Life*(Cambridge: MIT Press, 2005).
- Jagun, Abi, Richard Heeks, and Jason Whalley, "The Impact of Mobile Telephony on Developing Country Micro-Enterprise: A Nigerian Case Study,"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4, No.4(2008).
- Jensen, Robert, "The digital Provide: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Performance and Welfare in the South Indian Fishers Sect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2, No.3(2007).
- Kang, Juhee, Rich Ling, and Arul Chib, "The Flip: Mobile Communic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During Their Journey to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12(2018).
- Komen, Leah Jerop, "Mobile Telephony and Copresence in Marakwet, Kenya,"

- Journal of Development & Communication Studies*, Vol.5, No.1(2017).
- Ling, Rich, Elisa Oreglia, and Rajiv George Aricat, Chitra Panchapakesan, and May O. Lwin, "The Use of Mobile Phones among Trishaw Operators in Myanma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9(2015).
- Lyon, Fergus, "Trust, Networks and Norms: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in Agricultural Economies in Ghana," *World Development*, Vol.28, No.4(2000).
- Marcus, Noland, "Tele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Has Orascom Made the Connection?," *North Korean Review*, Vol.5, No.1(2009).
- North, Douglass C.,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hird World Development," in John Harriss, Janet Hunter and Colin Lewis(ed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hird World Development*(London: Routledge, 1995).
- Overå, Ragnhild, "Networks, Distance, and Trust: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Changing Trading Practices in Ghana," *World Development*, Vol.34, No.7(2006).
- Seliger, Berhad and Stefan Schmidt, "The Hermit Kingdom Goes Onlin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 Policy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10, No.1(2014).
- Vertovec, Steven, "The Social Glue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Vol.4, No.2(2004).

3) 기타 자료

- Kim, Yonho. Cell phone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2014).
- <https://pdfs.semanticscholar.org/c082/7be3629ff5f259c3ed75bd08f18300fbbbc0.pdf>(검색일: 2021년 2월 17일).
-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8).
- <https://www.unicef.org/dprk/media/156/file/MICS.pdf>(검색일: 2021년 2월 17일).

Mobile Phone Use and the ‘Trust’ Network of Market Activity in North Korea

Choi, Sunky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market activity mediated by mobile phone use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that technology, market activity, and social relations are intertwined in North Korean society. As North Korea’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expands, mobile phones have become a necessity for residents in the market, and have an impact on the market development. The use of mobile phones has increased market efficiency by mediating the distribution of market information, long-distance transactions, safe transportation and remittance, and so forth. The “trust” and “cooperation” that arise from the combination of non-human and human actors in North Korea’s market activities suggest the possibility of loose solidarity forming between market participants for generating profits.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in a process of combining with a series of technologies that create new social dynamics, and among them, the use of mobile phones by North Koreans is a critical

site in which self-sustaining system is built while compensating for the deficient elements in the market.

Keywords: North Korean society, North Koreans, marketization, mobile phone,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